

##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1-10

1절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 구시 기도시간이라고 하였다. 오늘의 달력으로는 오후 3시를 의미한다. 기도 시간이라는 의미는 저녁 제사가 드려진 직후를 의미한다.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도 시간이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기도 시간이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걸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구걸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었을 것이다.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What I do have)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한 말이다. 나는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에게 큰 유익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내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은 핏자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 손자들이 오면 너무 너무 그 핏자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 사모님은 손자들이 오면 그 핏자 해 주는 기쁨 때문에 손자들이 오면 그렇게 즐거워 한다고 한다. 오늘 베드로는 40년 넘게 나면서 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를 걷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What I do have)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6) 그러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지 못한 사람이 멀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러자 수천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이러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 하느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이름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 된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각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 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인간의 방법, 금과 은으로 해결 할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결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가끔 우리 주위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결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때로 성도들이 모여서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정의 문제가 해결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교회는 이와 같은 아픈 소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70인으로 구성된 의회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요한과 알렉산더 대 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한 대 규모의 재판관이 모였다. 그들은 관례에 따라 반원형으로 앉아 있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 놓고 심문을 한다(7). 그들의 심문의 내용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이다. 공회가 제기한 죄목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말살 하고자 한다. 어느 시대나 공권력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된 것이다.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한다.

4:8-10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 충만은 결코 우라와 무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거대한 공권력과 담대하게 대항해서 승리 했듯이 (13-15)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진 확신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 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큰 확신인가? 캐나다인으로서는 천안 나사렛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풀이라는 사람과 매주일 금요일과 주일에 영어 성경 공부를 했다. 그분은 항상 성경공부 할 때 마다 반복한 이야기가 있다. **Confidence in the Lord(주 안에서 확신)**.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이분과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난다.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이 넘쳐 있다. 얼마나 멋 있는가?

그래서 계속 이런 설교를 한다.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나 깨나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견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고 큰 보물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바울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다.

빌립보서 3:7-9절을 읽어 보자.

빌립보서 3:7-9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온몸을 다해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월 30일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몸부림 치며 일하고 있는 것을 소개 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어느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누군가를 물었더니 자기는 한양회관 학사회 회장인데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고 하였다. 참 이런 일도 다 있는가? 직장이 의정부라고 하는데 마곡까지 와서 식사를 대접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는 코로나 시대라 밖에서

식사하는 일을 꺼리는데 식사를 대접 하겠다고 해서 고마운 일이지만 사양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꼭 목사님을 만나 상의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내용이나고 물으니 한양회관 50주년 기념 예배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1월 31일 양속 날자를 정하고 몇주 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다 약속날 전날 밤 밤 2시에 일어나 50주년 기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아침까지 기도하며 작성해서 커톡으로 보냈다. 몇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로 50주년이니까? 당일치기고 하지 말고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수양화로 하자. 둘째, 수양회는 말씀 수양회를 해야 하는데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셋째는 이번에는 국제 수양회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들이 지도한 양들까지 다 초청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적어도 3억은 모급해야 할 것이다. 만나서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다. 그런데 내가 제시한 수양회 안건은 너무나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그 당시로 그 제안은 어려운 제안이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능 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 10명 가까이 모이는 기도팀이 매주 월요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내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 응답이 되었다. 한양 회관 50주년 기념 예배가 국제대회로 하고 하고, 해를 바꾸어 2박 3일 수양회로 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수양회로 하기로 했다,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 우리 50주년의 역사가 꼭 사도행전 역사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ESF와 온마음 교회는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한 시간의 강의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되어 기도하다가 이 역사를 글로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해 졌다, 그런데 이 책을 쓴다면 수양회 전에 나와야 가치가 있는데 그 전에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쓴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이다. 책을 쓰려면 자료 준비도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책을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 했다, 그러나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과거의 역사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평

소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샘 솟듯이 솟아 나서 책을 쓰게 되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쓰면서 강력하게 성령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연합과 조화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역사가 한뿌리에서 출발한 온마음교회와 ESF가 온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수양회가 이 역사의 싸인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오 목사님에게 설교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온 것이다, 간절히 애원하고 애원 한다, 이번 온마음 교회에서 한양회관 50주년 기념 수양회에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원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한 것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부탁 드린 것도 저 개인의 필요를 위한 도움이 아니고 오랫동안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겼던 동역자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어제까지 교화 수양회를 참석하고 수양회비도 내기 힘들텐데,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미 수양회를 위한 보조비를 냈으니 수양회비 내지 마시고 그냥 몸만 와도 된다, 온마음교회에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어색하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한다.